

學問과 生活

哲學의 濫尊觀念에 抗하여 (3)

金午星

哲學에 對한 이러한 誤解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더 甚해졌다. 그는 哲學을 『閑暇』의 産物이라 했다.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온갖 餘裕를 가진 사람의 精神的 逍遙에서만 哲學的 思索은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後世 사람들은 逍遙派라 불렀다. 하나 우리는 當時의 人間 가운데 가장 餘裕를 갖고 가장 閑暇한 사람들이 奴隸 所有階級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逍遙哲學이 奴隸 所有層의 支配的 이데오로기-임을 알 수가 있다. 勿論 哲學的 思索에는 餘暇가 必要한 것이 事實이다. 肉體가 疲勞하고 精神이 奔雜할 때에 哲學的 思索이 不可能한 것은 우리의 항상 經驗하는 바이다. 하나 전혀 生活을 떠난 餘暇는 오히려 哲學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實際的인 關心을 떠난 閑暇는 오직 倦怠를 가져올 뿐이요 哲學的 思索의 動機를 주지 않는다. 항상 實際 生活에 부닥기며 거기에서 必要와 刺戟을 느끼는 사람의 餘暇만이 哲學的 思索을 可能케 한 것이다. 忙中閑人만이 哲學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實際에 잇서 哲學을 閑暇의 生産이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도 世間事에 對한 關心을 아주 끈허버린 有閑人은 아니었던 것이다. 希臘의 黃金時代가 그 絶頂에서 오직 頹落의 一路를 밟으려 할 때에 태어난 그는 알렉산더大王의 師父로서 그를 도와 아덴[아테네]의 貴族政治를 維持하려고 無限히 애를 썼다. 大王이 그의 忠言을 不聞에 付하고 波斯 遠征을 敢行함에 失望하고 그 뒤로는 學校를 創設하여 오직 弟子들과 더불어 精神的 逍遙의 學究生活에 一生을 보냈으나, 그의 論理學, 國家論 등이 아덴 市民을 爲하여 써졌고 또 아덴 現實을 그대로 反映하고 잇슴을 보았서도 哲學이란 本來 實際 生活에 對한 關心이 업시 單純한 閑暇에서는 생겨지지 않는다는 事實을 證明하고 잇는 것이다.

哲學은 單純한 驚異나 餘暇에서 産出되는 天才的 空想이 아니요, 그 動機가 實際 生活의 關心과 必要에서이며 또 그 効能이 亦是 實際 生活에 左右되고 잇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哲學은 무슨 까닭에 一般에게 非現實

的인 印象을 주며 더욱이 哲學者 스스로가 오히려 非現實的인 것을 自誇하고 있는가? 그것은 哲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特性에서 오는 錯覺일 것이다.

첫째, 哲學은 實際 生活의 要求에서 생겨지는 것이나, 그러나 哲學은 달은 學問 例컨대 自然科學, 歷史學, 經濟學, 社會學 等等과 가티 所與된 各個의 事實을 直接 素材 그대로 取扱하지 안코 그것을 抽象化하며 概念化시켜 그것의 究極的인 것을 探求하는 것임으로 항상 그 動機를 省察하지 못하는 限에서 哲學은 現實과는 區別되는 絶對의 學永遠의 學인 것과 가튼 錯覺을 가져 오는 것이다. 哲學은 항상 究極的인 것, 絶對的인 것을 探求한다. 그러나 哲學이 애써 못잡어 붓잡어 노픈 그 究極的인 것, 絶對的인 것은 그 다음 時代에서 보면 結局 그 當時의 時代的 制約 미테서 規定되어진 그 時代의 究極者 그 時代의 絶對者에 不過한 것이 모든 哲學의 運命인 것이다. 希臘哲學의 完成者로 自己의 哲學을 人類 思索의 完結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은 結局 奴隸制度 時代의 奴隸 所有層의 支配的 이데오로기-에 不過하였으며, 게르만民族의 社會를 道理의 王國이라 하고 自己의 哲學을 世界精神의 自己完成으로 생각한 헤겔의 哲學도 지금 와서 보면 結局 市民社會의 自己辯護의 이데오로기-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哲學이 어떤 天啓的인 것이 아니고, 人間의 實在的 要求를 基礎로 하고 있는 限에서 차라리 當然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自己의 現實的 制約을 自覺하기는 그 抽象性, 概念性 때문에 容易한 일이 아닌 것이다.

둘째, 哲學은 抽象化, 概念化의 手段을 밟지 안코는 成立되지 못하는 까닭에 哲學하는 사람들은 自己네를 모든 實際家와 스스로 區別하여 論理家로서 自處하게 된다. 여기서 哲學者란 特殊職業層이 생긴다. 아니 哲學은 本來 理論家란 特殊職業層에 依하여 生産된 것은 아니었다.